

김연경, 흥국생명과의 7억7500만원 계약... “내년 우승 도전”

“감독 시즌 구상 결정 이유...팬들 함성도 생생”

“다음 시즌에는 꼭 놓친 우승컵 들어올릴 것”

‘배구 여제’ 김연경(35)이 1년 더 흥국생명에서 뛰다. 프로배구 흥국생명(구단주 임형준)은 16일 김연경과의 FA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과 총 보수액 7억7500만원(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원)에 1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에서 3번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김연경은 2022-2023 시즌을 마치고 FA자격을 획득해 주목을 받았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던 김연경은 고민 끝에 계속해서 핑크색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했다. 김연경은 “내 생애 처음 맞이하는 FA라 생각이 많았다. 감독님의 시즌 구상 계획이 내 마음을 결정하게 만든 큰 이유였다. 지난 시즌 6000석을 가득 채워준 팬들의 함성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에 아쉽게 놓친 우승컵을 다음 시즌에는 꼭 들어 올리고 싶다. 또한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주신 흥국생명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계약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은 “김연경은 배구 선수로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수라 생각한다. 이런 선수와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프랜차이즈 스타 김연경과 FA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김연경과의 계약은 다음 시즌 통합 우승으로 가는 첫 단추를 채운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명문구단으로서 팬들에게 우승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고심했던 김연경은 선수 생활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연경은 튀르키예, 중국 등 해외 리그에서 활동할 것을 제외하면, 2005년부터 출근 흥국생명에서만 뛰었다. 흥국생명의 레전드 선수로 남게 됐다.

뉴스스



함평군 레슬링팀, 전국대회서 전원 메달 획득 ‘꽤저’

지난해 갑작스러운 해체에 이적 못한 장은실·나명길·김가빈 3명 선수 정기근·이정민 회장 후원 약속...2월 레슬링팀 창단 후 첫 대회서 메달



함평군 레슬링팀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남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레슬링협회 주최 제1회 해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에 출전한 선수 전원이 메달을 획득한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함평군청 레슬링팀의 갑작스런 해체가 결정됨에 따라 다른팀으로의 이적을 하지 못한 3명의 선수를 함평군레슬링협회 회장(정기근)과, 함평군레슬링협회 후원 회장(이정민)이 선수들을 후원하기로 약속하

고 2023년 2월 함평군 레슬링팀을 창단했다. 장은실·나명길·김가빈 세명의 선수로 구성된 후 지난 3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린 회장배 전국 레슬링대회에 첫 출전을 하여 그레코 63kg(김가빈)에서 은메달을, 그레코72kg(나명길)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이번 대회에는 전원 메달을 목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함평군레슬링팀에서 특히 주목 할 만한 선수는 피지컬100에도 출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고, 방송과 훈련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자자유형 68kg급의 장은실 선수다. 출중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남자일반부 그레코로만형 63kg급의 김가빈 선수가 동메달을, 남자일반부 그레코로만형 72kg에서 나명길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군 레슬링협회 정 회장은 “어려운 여건과 질박함속에서 훈련 선수들의 구슬땀과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고 말하며, 오는10월에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 대회가 레슬링의 메카인 함평에서 열리는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지원과 선수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기자

LPGA 롯데 챔피언십 우승 ‘호주 교포’ 그레이스 김

호주서 ‘캐리 웹’ 장학금 4차례 받은 유망주 올해 1부 투어 데뷔 세 번째 대회 만에 첫 승

‘호주 교포’ 그레이스 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생애 첫 정상에 올랐다. 그레이스 김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에바비치의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타를 줄여 연장에 합류, 버디로 성유진, 류위(중국)를 제치고 우승했다. 성유진과 함께 류위에 1타 차 뒤진 공동 2위 그룹을 이어가던 그레이스 김은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18번 홀에서 이어진 1차 연장에서 세 번째 샷을 가장 가까운 곳에 보낸 뒤 버디에 성공했다. LPGA 2부 엠슨 투어에서 뛰다 올해 정규 투어에 데뷔한 그레이스 김은 세 번째 대회 만에 첫 우승에 성공했다. 성유진과 동갑내기인 2000년생 그레이스 김은 한국인 부모님을 둔 교포 선수다. 이날도 어머니가 현장에서 딸의 우승을 지켜봤다. 시드니 인근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재능을 보였다. 아마추어 시절 각종 대회에서 우승했고, 호주 골프 유망주들에게 주는 캐리 웹



롯데 챔피언십 우승한 그레이스 김. (사진=대홍기획 제공)

장학금도 4차례나 받았다. 특히 호주에서 가장 큰 주니어 골프대회인 오스트레일리아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또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올림픽에선 여자골프 개인전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2021년 프로가 된 그레이스 김은 지난해 엠슨 투어에서 상금 랭킹 5위에 올라 올해 1부 투어에 올라왔다. 그레이스 김은 168cm의 비교적 큰 키에 타고난 유연성을 바탕으로 드라이버가 정교한 선수로 잘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서도 평균 드라이버샷 거리가 277야드를 기록했고, 이날 연장에서도 과감한 샷으로 짜릿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뉴스스

오타니, 36경기 연속 출루...일본인 역대 5위

3경기 연속 안타로 타율 0.313

오타니 쇼헤이(29)가 3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오타니는 16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

정경기에 3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3경기 연속 안타를 친 오타니는 시즌 타율을 0.295에서 0.313으로 끌어올렸다. 시즌 9타점, 9득점째를 기록했다. 또한 오타니는 3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일본인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에인절스는 4타수 3안타 2득점을 기록한 마이크 트라웃과 오타니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노렸지만, 7-9로 역전패를 당했다. 에인절스 지오 아엘라의 1회초 선제 만루 홈런도 빛이 바랬다. 아엘라는 5타수 2안타 5타점으로 활약했다. 2연패를 당한 에인절스는 시즌 7승 7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2위에 머물렀다.



‘한국 씨름의 명가’ 영암군민속씨름단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2관왕

영암군청 소속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린 ‘평창 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대회 4일차 금강장사(90kg이하) 결정전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주장이자 팀 내 최다 타이틀 보유자인 최정만 장사는 첫 장사등극에 도전하는 파죽지세의 이주용(부산갈매기)을 만나 단 한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따내며 금강급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 올해

만 2번째 장사에 오르며 개인 통산 17번째 금강장사에 등극했다. 다음날 열린 한라장사(105kg이하) 결정전은 한술밥을 먹는 최성한 장사와 차민수 장사의 집안싸움이었다. 마지막 판까지 가는 승 무하는 접전을 펼치며 관중들을 긴장케 한 가운데, 차민수 장사가 12번째 한라장사에 도전하는 최성한 장사의 허를 찌르는 신속한 발다리를 저중시키며 마침내 우승을 확정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대회 마지막 날 김민재

장사의 백두급(140kg이하) 4위와 단체전 준우승을 더하며 대회를 마무리, 이번 대회에만 2번의 우승을 추가하며 총 70회의 우승(장사 58회, 전국체전 금메달 4개, 단체전 8회)을 기록했다. 김기태 감독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은 항상 발전하는 팀이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팀이다. 항상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영암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피겨여왕’ 김연아 키즈, 김연아도 못 났은 대회서 첫 출전에 日 넘어

피겨 월드 팀 트로피 대회서 미국 이어 2위...차준환-이해인에 아이스댄스-페어도 가세

피겨여왕 김연아가 보고 자란 피겨스케이팅 유망주들이 김연아가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대항전에서 2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 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일본 도쿄 체육관에서 개최된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월드 팀 트로피 대회에서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은 첫 출전한 대회에서 주최국인 일본을 제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일본은 한국에 밀리면서 직전 대회에 이어 2연속 3위에 그쳤다. ISU 월드 팀 트로피 대회는 한 시즌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6개국이 참가하는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으로 매 2년마다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지만 ISU 팀 트로피 대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회는 피겨여왕 김연아도 밟지 못했던 무대다.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기 전 독보적인 존재였던 탓에 남자 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등 다른 종목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김연아가 현역으로 뛰던 시절에는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김연아가 은퇴한 후 9년째가 된 올해는 달랐다. 김연아를 보면서 꿈을 키운 차준환과 이해인이 세계선수권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거머쥐며 세계 정상급으로 도약했다. 여자부 김예림



과 남자부 이시형도 뒤를 받치며 대표팀의 한 축을 담당했다. 여기에 페어, 아이스댄스에 외국 국적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단체전 경쟁력이 향상됐다.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임해나는 캐나다와 한국 이중 국적이고 파트너인 최안 예는 중국계 캐나다인이다. 페어 종목에 출전하는 조해진 역시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 선수고 파트너 스티븐 애드록은 캐나다 국적이다. 차준환과 이해인이 나란히 남녀 싱글 종목에서 1위에 오른 것은 고무적이다. 차준환은 4회전 점프를 주무기로 하는 일리아 말리닌(미국)을 세계선수권에 이어 또 다시 눌렀다. 이해인은 세계선수권에서 1위를 내줬던 사카모토 가요리(일본)를 꺾고 1위에 올랐다. 이번 팀트로피 대회에서 기대 이상 성적을 거둔 한국 선수들은 자신감을 갖고 다가오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